

LG화학 여수공장 아크릴산 증설 3200억 투자

2015년까지 아크릴산·SAP 1조7천억 생산체제 완비

도로·접착제 세계시장 선도...계열사업 집중육성 계획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LG화학이 고도의 제조 기술이 필요한 '아크릴산' 계열사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22일 LG화학 여수공장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여수공장에 총 3200억원을 투자해 아크릴산 16만

과 SAP 8만t을 증설한다. 이번 증설이 완료되면 LG화학은 총 51만t의 아크릴산과 36만t의 SAP 등 대규모 연결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아크릴산(CAA, Crude Acrylic Acid)은 석유화학 원료인 프로필렌

을 고온에서 산소와 반응시켜 생산하는 액체 상태의 유화 제품으로, 백색 분말 형태의 합성수지인 SAP(고흡수성 수지, Super Absorbent Polymer), 도로,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SAP는 유아 및 성인용 기저귀

등에, 아크릴산은 아크릴섬유, 점·점착제, 코팅제 등 3000여종의 다양한 용도로도 쓰이는 핵심 원료다. 아크릴산 사업은 독일의 BASF 등 일부 메이저 기업만이 생산해 낼 수 있는 특화된 산업이지만, LG화학은 지난 10여년의 연구 끝에 국내 최초로 아크릴산 촉매 및 제조 전 공정을 독자기술로 개발해 냈다. LG화학은 이에 따라 아크릴·SAP 사업을 집중 육성, 1조3000억원 수준인 현재의 사업 규모를 오는 2016년

까지 1조7000억원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LG화학 여수 공장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성장 등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진수 부회장은 "LG화학은 대규모 국내 투자와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력으로 세계적 아크릴산·SAP 메이커로 발돋움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세계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초중고생 등 406명에

장학금 6억여원 지급

광양 백운장학회

광양시 (재)백운장학회는 "지난 20일 커뮤니티센터에서 백운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여 초·중·고·대학생 등 406명에게 6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초·중·고등학생 2명씩 모두 6명을 선형장학생으로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서울대에 진학한 성적 우수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또 지역대학의 경쟁력 확보, 이공계열 및 특기 장학생 육성 등을 위해 관내 소재 대학생 10명, 이공계열 대학생 17명, 전문대생 8명과 미술, 과학, 체육 등에 재능을 갖춘 특기분야 장학생 37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난 1991년 설립된 (재)백운장학회는 시 출연, 기업체·시민의 자발적인 기탁으로 214억원이 조성돼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학회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밤바다 야경 황홀

여수갯길의 두 번째 코스인 '여수밤바다 코스'가 지난 21일 개장했다. 이순신공장을 출발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를 건너 종포 해양공원으로 이어지는 7.8km 구간으로, 최고의 야경 걷기 코스로 꼽힌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기자 노트

민원인 분신자살 부른 '불통행정'

시 청사 앞에서 한 민원인이 분신자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순천에서 벌어졌다. 이 민원인은 5년 전 관내 생산복지 지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심판에 이어 소송을 제기하고 몇 차례 탄원서를 냈었다. 당시 시는 해당 부지가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고, 결국 법원도 시의 손을 들어줬다.

자기 소유의 부지에 주유소에서부터 충전소, 소매점, 농가주택까지 각종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민원인은 결국 마지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민원인이 지난 2008년부터 높은 평가를 받던 민원인 수차례 냈지만 시는 끝까지 '원칙'만 강조했을 뿐 이 면을 헤아려 보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충분히 그러한 처분을 수긍하도록 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소통행정'을 아쉬워하고 있다.

사건이 터지자 시장은 지난 21일 오전 공직사무를 취소한 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통 부족 행정을 시인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전 부서에 소통 부족으로 인한 유사한 민원사례가 없는지 전방적인 점검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담당 국장을 대기 발령했다.

그러나 이번 문제의 핵심은 순천시민이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

에서 '법'의 잣대만으로 민원인을 대하려는, 고압적인 자세라고 할 것이다. 어려운 법 조항이나 규정을 들먹이며, '안된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공무원의 모습은 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것이다. 수 많은 민원 속에서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는 것만이 높은 평가를 받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이번 사건의 배경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민원은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다. 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까지 고려해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곧 공직자의 자세인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직사회가 지금까지 고집해온 잣대에 대해 고민하고, 민원인들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행정을 펴나갈 것 기대한다. /yjy@kwangju.co.kr



예정열 순천주재기자

고흥 해역 암초 주의보

고흥반도 일대 해역에서 수중 암초 20여 건이 발견돼 항해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장흥·보성·고흥군과 순천·여수시에 이르는 고흥반도 부근에 이뤄진 연안해역 정밀조사 결과 상백도, 거문도와 나로도항, 사동항, 초도항 부근 해역에서 낮고 위험한 수중 암초 20여 건을 확인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단신

내년 춘향제 5월 2일~6일 개최

춘향제전위, 주제·행사 일정 등 확정

남원시 춘향제전위위원회(위원장 안숙선)는 22일 "지난 20일 제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춘향제를 5월2일부터 6일까지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제는 공모 최우수작품인 '사랑 이야기, 남원에 물들다'로 결정하고 시민·관광객에게 춘향의 사랑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추진방향은 시민 참여형 축제 문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축제 공간은 메인 무대를 광한루원 완월정으로 배치해 개·폐막식, 춘향선발, 국악대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품물 장터는 승월교 아래 요천변으로 이전, 축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광한루원 앞 옥 철쭉공원

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개·폐막식 공연은 전통공연과 함께 젊은 층 선호 공연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된다. 춘향선발대회는 길놀이와 포토타일 등 주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시킨다.

국악대전은 흥미·대중성을 가미한 판소리 프린지, 왕중왕전 등 프로그램의 변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춘향시대속으로는 마당별 공연 세트장을 조성해 프로그램 연출 완성도를 높여기로 했다.

임용택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미흡했던 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욱 강화해 시민·관광객이 환하게 웃고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전북

지역구 선심성 예산은 끼워넣고 일용직 임금은 삭감

정읍시의회 예산안 처리 '빈축'

기업인력 양성 산학협력지원센터 건립비도 전액 없애

최근 내년도 예산을 처리한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일용직 노동자 임금까지 삭감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차량 구입비 등도 포함돼 있다.

시의원들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들로, 매년 반복되는 기초회의의 구매이기도 하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내년에 지방선정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26건에 15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의원들이 새로 항목을 만들어 세운 이들 예산은 각 읍면동의 농로 포장과 경로당 기능 보강, 수로관 설치 등에

집중돼 있다. 읍면동별 행사 지원비와 지역별 축구대회 지원금, 민간 기관의 차량 구입비 등도 포함돼 있다.

시의원들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들로, 매년 반복되는 기초회의의 구매이기도 하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내년에 지방선정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26건에 15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의원들이 새로 항목을 만들어 세운 이들 예산은 각 읍면동의 농로 포장과 경로당 기능 보강, 수로관 설치 등에

공동으로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 등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학협력지원센터 건립비 5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에 큰 역할을 하는 인터넷 쇼핑몰 관련 사업비도 60% 이상을 깎았다.

심지어 제조업에 투입될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1200여만원까지 '불필요한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도 정읍시의회는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회성 행사와 비효율적인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며 자화자찬했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



발마사지 받으니 좋네

정읍아산병원(병원장 문숙란) 은빛재활센터 직원들이 지난 21일 병원을 찾은 노인들의 발을 마사지하고 있다. 정읍아산병원은 지난 20일 기존 노인주간치료 센터를 본관 1층으로 이전 확장한 후 '은빛재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정읍아산병원(병원장 문숙란) 은빛재활센터 직원들이 지난 21일 병원을 찾은 노인들의 발을 마사지하고 있다. 정읍아산병원은 지난 20일 기존 노인주간치료 센터를 본관 1층으로 이전 확장한 후 '은빛재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정읍아산병원(병원장 문숙란) 은빛재활센터 직원들이 지난 21일 병원을 찾은 노인들의 발을 마사지하고 있다. 정읍아산병원은 지난 20일 기존 노인주간치료 센터를 본관 1층으로 이전 확장한 후 '은빛재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순창군 '귀농·귀촌 사업 평가' 장려상

순창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전국단위 '귀농·귀촌 사업' 평가 결과 전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장려상을 수상했다.

순창은 그동안 귀농·귀촌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해마다 꾸준히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만 500여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공로가 인정됐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에는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 스크린공고를 비

롯해 대도시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등을 직접 찾아가 '찾아가는 귀농사업'을 실시하고 대도시 귀농인학교 프로그램 순창 유치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인가를 모았다.

귀농·귀촌인에게 주는 지원 또한 대폭 확대해 이사비 100만원, 주택신축 및 수리비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500만원, 집들이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사업비로는 사업비의 50%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를 지원하고, 응자사업도 주택신축비 4000만원과 귀농인 창업지원 2억원까지 지원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시 지방채 213억 저금리로 바꿔 예산 13억 절감

정읍시가 지난 20일 213억원의 고금리 지방채를 중도상환하고 저금리로 바꿔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가 차환한 지방채는 지난 2009년 내국채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을 위해 차입한 213억원으로 고정

금리 4.49~4.85%의 높은 수준이었다.

시는 지방채 608억원 가운데 공공자금관리기금인 213억원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금융기관 간 상호 협상을 통해 3.77%로 이자를 낮췄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관광객 5만 유치 나서

남원시운봉읍에향회(회장 오석순)와 운봉읍(읍장 김희옥)은 최근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50여일 동안 개최되는 제3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흥보단을 구성하고 관광객 5만명 유치를 나섰다.

이번 축제에서는 눈썰매, 얼음썰매, 빙벽체험장 운영, 눈 조각 전시,

대규모 눈썰매대회, 바래봉 눈꽃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운봉읍에향회는 지난 1일부터 행사장 주변 경관시설을 설치하고 눈썰매장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모집에 착수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순창군 하반기 명예감사관 간담회 개최

순창군이 지난 19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하반기 명예감사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황승주 군수와 명예감사관 12명이 참석해 올해 명예감사관 운영성과와 명예감사관과의 소통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명예감사관은 순창읍에서 2명, 각

면에서 1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순창군 명예감사관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올해 4차례에 걸쳐 명예감사관들의 건의사항 수렴 결과 30건이 접수됐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혁신도시 지역 버스요금 1100원으로 단일화

전북도는 22일 "혁신도시 지역의 버스요금을 1100원으로 단일화해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북 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어 전주지역은 1100원, 완주지역은 거리에 따라 최고 1650원이 적용됐다.

혁신도시에는 현재 3개 노선에 하루 121회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 8월부터 혁신도시 내의 택시요금 기본료를 2800원으로 통일했다.

/전주·군산=백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원이 적용됐다.